새바람 행복 경북!	**경상북도 보도자료**	2019. 2. 3(일)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지역 지원 특별법 마련한다** 올 상반기 중 법안 마련... 국회 제출	원자력정책과	
②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 달라지는 지방세** 신혼부부 생애 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등	세정담당관	
③ **경북도, 올해 농어업인 햇살에너지 지원사업 확대** 융자지원금 80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농외소득 창출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에너지산업과	사진별첨
④ **경북도, 2019년도 문화재보수 사업비 조기집행 기반 마련하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지침 확정, 총 127건 140억원 사업비 투입	문화유산과	
⑤ **도농업기술원, 벼농사 지도전문인력양성 명품쌀 생산** 올해 10월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 대상 벼농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실시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2. 3(일)】	담당부서	동해안전략산업국 원자력정책과		
		작성자	과 장	김 승 열	
			팀 장	김성은	주무관	이미경
		연락처	054-880-7658		

경북도,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지역 지원 특별법 마련한다

- 올 상반기 중 법안 마련... 국회 제출 -

경상북도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은 경북(경주, 울진)을 비롯해 부산(기장), 전남(영광), 울산(울주)에 입지하고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설계중단 및 영덕 천지 원전 건설 백지화와 수명연장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원전지역에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신규 원전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지원대상이 신규원전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어 경주와 울진 등 경북지역과 부산, 울산, 전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기 원전지역과 신규 원전지역 모두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개발하고, 지원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긴급하게 용역예산을 편성해 법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원전지역 지자체와 법안 발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원전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백지화, 노후원전 조기폐쇄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된 지역이 경북인 것은 사실” 이라고 강조하면서

“원전지역의 피해 보상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을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겠다” 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경북도내 원전지역은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5조 360억원) 감소와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4조 3,195억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380억원) 감소 등 약 9조 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인원 1,272만명의 고용 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2. 3(일)】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작 성 자	담당관	강 상 기		
			팀 장	임 진 걸	주무관	이 지 원
		연 락 처	054-880-2211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 신혼부부 생애 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등 -

경상북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주요 내용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고(4년→5년),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된다.(2021년까지)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50%)받게 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용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로 인하(4%→6억이하 1%, 6억~9억 2%, 9억 초과 3%)한다.

특히, 경북도는 민선 7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가산금 인하(월 1.2%→0.75%), 취득세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독촉장 발급기한이 연장(10일→20일)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북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2019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 개정방향

○ 지방세 전자송달 및 경정청구 확대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 가산세 및 중가산금 이율 인하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등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지방세기본법	- 금융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가능 -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확대 ※과다 신고로 경정청구한 경우에도 2개월 이내 부과제척기간 연장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1일 0.03%→ 1일 0.025%)	
지방세징수법	-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율 인하(1개월 1.2%→ 1개월 0.75%)** -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 연장(10일→20일)	
지방세법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 용도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포함**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단, 법인은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대상 확대 • (2배) 학원(500㎡ 이상), 하역장, 집배송 시설 등 • (3배) 5층 이상 병원, 병상 100개이상 종합병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50% 감면)** - 청년창업기업 5년이내 부동산(취득세 75%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 재산세 감면 폐지 등 - 다자녀양육 차량 최소납부세제 적용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 설정(50만원) - 농업용시설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 유공자 주택 취득 후 60일이내 대부금 수령의 경우 감면 대상 포함 **-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100% 등)**	
경상북도 도 세 감면조례	- 다자녀가구가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취득세 50%)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2. 3(일)】	담당부서	동해안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작성자	과 장	김 준 호	
			팀 장	류시갑	주무관 윤효정
		연 락 처	054-880-7639		

경북도, 올해 농어업인 햇살에너지 지원사업 확대

- 융자지원금 80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농외소득 창출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

경상북도는 기후협약 대응, 에너지안보, 재생에너지 3020정책 등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력생산과 FTA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농어업인 햇살에너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햇살에너지 지원사업은 농어촌 건축물·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의 생산·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정부정책과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방지코자 논·밭·과수원 등 실경작지는 제외

지난해 햇살에너지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25건으로 그간 햇살에너지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및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매년 50억원에서 올해부터는 매년 80억원 규모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확대(30억원) 조성한다.

경북도는 올해 3월경 실시할 예정인 햇살에너지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는 공고일 이전에 설치장소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사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의 지원계획을 보면,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 6천만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8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앞으로 경북도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스마트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에너지 신산업을 확대하는 한편 도민들의 농외소득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2. 3(일)】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작 성 자	과 장	김 진 원	
			팀 장	배도석	담당자 김대현
		연 락 처	054-880-3167		

경북도, 2019년도 문화재보수 사업비 조기집행 기반 마련하다!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지침 확정, 총 127건 140억원 사업비 투입 -

경상북도는 '2019년 문화재보수사업 지침'을 지난해보다 빨리 확정해 시군에 배포, 올해 도내 문화재보수사업에 직접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보수사업 지침은 매년 당해 연도 1~2월중에 현장 조사하던 것을 지난해 12월에 문화재위원,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와 심도 있는 합동회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별로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문화재 127건에 대해 최종 보수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월달 동절기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해빙기부터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돼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지침서에는 노후·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하고 주변정비를 하는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준수사항과 문화재별 설계지침,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 기준 및 문화재수리공사 현장 관리지침 등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부분을 일괄 포함하고 있다.

올해 보수정비사업으로는 포항시 소재 연일향교 대성전(문화재자료 제1호) 주변정비공사 등을 포함해 127건에 총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한만수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19년 문화재 보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상의 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물론 이를 관광자원화 해 많은 관광객이 경북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주요 보수정비사업

<table>
<tr><td></td><td></td></tr>
<tr><td>포항 입암서원(주변정비)</td><td>안동 제산종택(사당 보수)</td></tr>
<tr><td></td><td></td></tr>
<tr><td>영주 만취당(관리사 보수공사)</td><td>문경 김용사 대성암 금당(기단, 석축 등 정비공사)</td></tr>
</table>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2. 3(일)】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작 성 자	과 장	이 상 택	
			팀 장	김수연	담당자	손영보
		연 락 처	053-320-0446		

도농업기술원, 벼농사 지도전문인력양성 명품쌀 생산

- 올해 10월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 대상 벼농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실시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경북 명품쌀 생산을 지도하기 위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10회에 걸쳐 시군농업기술센터 신규 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벼농사 현장 지도전문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지도직공무원을 벼농사 지도전문인력으로 양성, 경북 명품쌀 생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벼 재배 기본교육 ▶벼 병해충 관리 ▶현장실습 ▶전시포 및 현장 지도 교육 ▶강의 기법 향상 등으로 편성돼, 실무담당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북의 대표 쌀 생산 시군인 포항, 경주 등 5개소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험 전시포를 설치한다. 밥맛 좋은 쌀 생산의 기본인 이앙, 수확 등의 시기를 규명하는 지역 맞춤형 벼 재배 기술을 정립할 계획이다.

곽영호 경북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교육이 벼 전문기술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변화에 대처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